



‘연재시대’

손연재 리듬체조 갈라쇼
소년시대 ‘훗’ 안무 공개

리듬체조 갈라쇼 ‘LG 워센 리드믹 올스타즈 2011’을 앞두고 손연재가 지난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동 세종고등학교에서 소년시대 ‘훗’ 안무를 선보이고 있다. 갈라쇼는 11일부터 12일까지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발목부상 KIA 나지완·김주형

‘한방 충전’ 몸만들기 구슬땀

발목부상에 발목잡힌 김주형·나지완 KIA의 두 우타거포가 복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1985년생 동갑내기 김주형과 나지완은 파워 하나로는 프로야구 무대에서도 손에 꼽는 우타거포다. 군복무를 위해 팀을 떠났던 김주형이 올 시즌 팀에 복귀하면서 두 거포의 한방 전황이 예고됐지만 부상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나지완

회복 빨라 러닝훈련 돌입
“당장 그라운드 서고 싶다”

김주형

발목 통증 가라앉은 상태
“이틀 뒤 배팅훈련 나설 것”



나지완



김주형

김주형은 “가끔 발목이 붓고 아픈데 며칠 있으면 괜찮아진다. 올 시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만족할 만한 활약을 하지 못했다. 포지션 경쟁이 치열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심신의 준비를 잘해서 타석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재활군에서 재회하게 된 두 거포는 한방 대결을 위해 몸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주형은 큰 부상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복귀 준비가 수월하다. 왼발목이 부어올라 100%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통증은 많이 가라앉은 상태다. 이를 가량 발목 상태를 지켜본 뒤 바로 배팅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관 고경수술을 받았던 나지완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어 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러닝 훈련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 나지완은 티배팅에 이어 지난 31일 통타까지 소화했다. 한 달 넘게 방망이를 잡지 못했지만 흥세완 재활군 코치로부터 ‘스윙이 꽤 매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상적인 배팅훈련을 눈앞에 두면서 빠르면 다음 주 2군 합류도 가능한 전망이다.

나지완은 “통증도 없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 시즌을 위해 준비도 많이 했고, 타격감도 좋았던 만큼 속상하기도 했지만 아직 시즌이 끝난 것은 아니다. 티비를 통해서 또 관중석에서 KIA 경기를 지켜봤다. 빨리 1군에 복귀해서 그라운드를 뛰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 동호인들 “개별소비세 위험” 현재에 의견제출

온라인 골프 동호회원들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위험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온라인 골프동호회인 ‘형그리골퍼골프클럽’과 ‘왕골스토리’는 지난 31일 “골프가 사치성 오락이 아닌 데도 골프장 입장객에게 사치성 개념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동호회원들은 1970년대에는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로 분류될 만했지만 골퍼인구가 430만 명에 달하는 현재에도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오락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같은 골프장인 대중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 회원제 골프장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소년체전 전남 4위·광주 13위

마지막 금메달 3개가 구기종목에서 나왔다.

전남은 지난 31일 경남 진주일원에서 열린 제 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마지막날 배구, 축구, 정구경기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하며 기세를 올렸다. 광주는 금메달 사냥에는 실패했으나 은메달 7개를 추가했다.

배구 남초부에서 순천 대석초가 경북 하양초를 세트스코어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축구 여중부 결승에서는 광영중이 충북 예성여중을 3-1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중학부 정구에서도 전남이 대구를 2-1로 제압하고 우승을 가져갔다.

사이클의 김보배(나주 다시중)는 대회 마지막 날 열린 2km 단체추발과 500m 복주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체육중의 손승재와 임다솔도 각각 복싱

남중부 라이트밴텀급과 수영 여중부 개인영 200m에서 은메달을 뒀다.

우승에 도전했던 광주 여자배구 대표광주체육중과 치령초는 경기 원곡중과 인천 영선초의 벽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다. 광주는 정구 여중부 단체전과 펜싱 여중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 두 개를 추가했다.

레슬링 남중부에서는 자유형 63kg급의 양태현(금주중)과 자유형 76kg급 이석재(광주체육중)가 은메달리스트 대열에 합류했다. 여초부 자유형 50m에 출전한 김민화(마재초)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전남은 금 32, 은 21, 동 32개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4위를 차지했다. 광주도 금 16, 은 24, 동 32개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뛰어오른 13위에 올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지성·박주영 등 해외파 귀국

지성 “다음 시즌 기다려진다” 맨유와 재계약 시사
주영 “이적 추진 중.. 챔스리그 나갈 팀 찾고 있다”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박주영(26·AS모나코) 등 ‘해외파’ 선수들이 지난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박지성은 30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맨유의 리그 통산 19회 우승 기념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나서 프랑스 파리를 거쳐 귀국 길에 올랐다.

지난 29일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패배 후 별도의 인터뷰 없이 경기장을 떠났던 박지성은 퍼레이드장에서 “(이번 시즌을) 잘 마쳐 기쁘다. 다음 시즌이 무척 기다려진다”며 맨유의 재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성은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결과에 대해 실망스러웠으면서 “퍼레이드에 참가한 팬들이 내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다. 기분

이 한결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입국장으로 나오지 않은 박지성은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의 귀국 인터뷰를 생략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프랑스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박주영, 정조국(27·오세르), 남태희(20·발랑시엔)도 이날 나란히 귀국했다.

이번 시즌 12골을 넣은 박주영은 소속팀이 2부 리그로 강등돼 이적을 추진 중이며 12일 결핵환 예정이다.

박주영은 이날 오후 광주NFC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적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어떤 리그로 옮기든 상관 없지만 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을 우선해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주앙파울로 주간 베스트 11 선정

광주 FC ‘공격의 핵’ 주앙파울로가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시즌 4호골에 성공한 광주의 공격수 주앙파울로가 지난 3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하는 K리그 12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주앙파울로는 지난 28일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지던 후반 인저리 타임에 동점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한편 12라운드 최우수선수 영에는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2골1도움으로 전북의 역전승을 이끈 이동국에게 돌아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간: 2011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Hot”한 여름을 “Cool”하게 날려줄

신양파크호텔 Beer Party!

매일 저녁 Cool하게 즐긴다!!

샐러드 뷔페 이용시 맥주 및 음료가 무제한 공짜!! ₩27,500 (세금포함)

행사장소: 6F SKY LOUNGE 상기 이벤트는 매일 오후 8시부터 12시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예약문의: TEL. 062)228-8000 / 062)221-4130